분별타파 경계 초월하는것이 '무아'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지음
그린비 펴냄
1만9천원

장타이옌(1869~1936), 어떤 이는 청대 학술의 대가이자 국학대사로, 혹은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루쉰 스승으로 그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를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그는 청말을 대표하는 고문경학자이자 국학자였던 동시에 유식불교에 정통한 불교학자였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시대에 구멍을 뚫어야했던 당시 젊은이들의 스승으로서 그들 앞에 서야 했던 혁명가였다. 당대에 닥친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했던 중국 근대불교와 고승들에 관해 꾸준히 연구해 온 젊은 학자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이 책을 통해 가장 오래된 종교이자 학문이었던 불교를 통해 현실을 구제하려 했던 장타이옌의 생애와 혁명이론을 정밀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무'라는, 근대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부정 혹은 거부'다.

'무'는 불교의 옷을 입고 장타이옌에게 왔고 그것은 그의 정치활동에 원동력이 됐다. 무가 있었기에 그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서구의 침략을 거부할 수 있었고, 무조건적인 진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었다.

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그런 것 없다고 말해 버림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을 식혀 버리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대 시기 중국불교가 수행한 역할이었다.

장타옌은 "불교는 결코 사회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과감한 폭로와 철저한 부정은 인류에게 자아 인식의 거울을 끊임없이 제공하였고, 인류가 부단

장타이옌, 유식불교 정통한 불교학자
'무'의 불교로 현실 구제 탐색해
근대시기 진화론 지식인에게 핫이슈

히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고 시정하도록 격발하고 자유와 행복의 참된 길을 찾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장타이옌이 마주하고 실천했던 그 '무'를 살피고 있다. 소보 사건으로 인한 3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쑨원이 있는 도쿄로 향한 장타이옌이 그 해에 처음으로 발표한 글의 제목은 '구분진화론'. 근대 시기 세계 어디서나 진화론은 지식인들에게 핫이슈였다.

그것은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한 장타이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당대 중국의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진화론의 허점을 비판했다.

장타이옌은 진화는 상반된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선도 진화하지만 악도 진화하며, 쾌락이 진화하면 고통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과 달랐던 점이었다.

"옷 입고, 밥 먹고, 잠잘 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법이 부족하면 서로 다투고 죽이는 행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혹론'이라는 글에서는 유식불교(세계는 오직 의작용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것의 공함을 깨닫는 것을 수행목표로 삼은 불교)의 개념을 빌려 '진화란 없다'고 주장한다.

"진화란 본래 아뢰야식의 미망이 구성한 것이지 실제로 진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식으로 봐도 일체 물질은 근본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쪽에서 보면 진화할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보면 퇴보일 뿐"이라며 도대체 뭘 진화라고 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장타이옌이 이 글을 쓴 지 100년이 넘게 흘렀고 량치차오의 바람처럼 중국 인종이 백인종에 매우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장타이옌의 질문은 계속된다.

장타이옌이 내세우는 개체는 그의 글 '인무아론'이나 '오무론'에 보이듯이 초월하는 개체, 즉 '무아'를 말한다.

이는 선언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식론·존재론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에야 가능하며, "통념적 인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한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취락, 인류, 중생, 세계를 모두 '무'화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무아'다. 무아는 '나'를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철저한 타자가 됨으로써 윤리가 된다.

분별을 타파하여 지혜를 획득하는 것, 단절과 불연속을 통해 새로운 차이를 만들

유식불교 개념빌려 '진화없다' 주장
무아는 불연속 통해 새 차이 만들어
결국 '나'도 없다, 불교 무아의 윤리

어 내는 것,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장타이옌이 주장했던 무아의 윤리였다.

그리고 장타이옌이 가리키는 윤리의 지점에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윤리'라고 하는 것의 빈약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공도덕이니 법이니 하는 이름으로 적절한 선에서 대중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그 윤리를 계속 그러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혁명가 장타이옌은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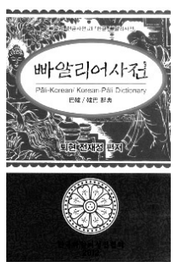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빠알리어 연구의 친절한 길라잡이

전재성 박사, 巴韓韓巴-빠알리어 사전 발간

빠알리어사전

전재성 편저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12만원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도구는 바로 '사전'이다. 부처님 당시 사용됐던 빠알리어도 마찬가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근본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언어이지만, 이를 다룬 사전을 많지 않다.

빠알리어 사전은 1875년 칠더스가 집필한 빠알리어 사전을 최초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전이 나왔지만 집필이 중단되거나 보완할 점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1994, 2005년 〈빠알리어 사전 상, 하〉와 〈빠알리어-한글사전〉을 각각 출간했다. 전 회장이 최근 다시 발간한 〈빠알리어 사전〉은 앞서의 두 사전을 합쳐 보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빠알리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휘 뿐 아니라 빠알리어 자체에 대한 문헌적인 지식과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출판된 다른 나라의 모든 사전에서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전은 이런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12만여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어휘들이다. 여기에 기존 사전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빠알리경전에 사용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휘를 모았고, 근현대적으로 성립된 빠알리어도 추가했다.

또한 기초편과 문법편, 어원편을 신설해 기본적인 문법과 빠알리 어근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문법편에서는 기본적인 문법뿐만 아니라 난해한 불규칙 명사·형용사 변화와 동사활용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원편은 빠알리어근활용사전 등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쉽게 추적하고, 활용된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수록된 '빠알리어한글표기법', '불교의 세계관', '빠알리대장경 구성' 등도 빠알리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번 사전의 구성에 대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누락된 복합어 부분을 보완하고 교정하면서 중요한 법수적 어휘와 아비달마적 용어를 새롭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붓다닷따(Buddhadatta)의 〈영어-빠알리어 사전(English- Pali Dictionary)〉을 참고로 현대어의 빠알리어적 표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 선장의 못다한 297일간 이야기

그들은 나를 캡틴이라 불렀다
석해균 지음
플러스81스튜디오 펴냄
1만2500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다. 이를 석 선장의 회고록 형식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비화와 해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배를 지켜냈던 석 선장의 저항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또한 갑판원서 출발, 선장이 되기까지 석 선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여정과 남다른 조국애가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2011년 1월 15일 오전 8시. 삼호 주얼리호는 인도와 오만 사이의 인도양 북부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이틀 전인 1월 13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港)서 연료를 보충하고 목적지 스리랑카 콜롬보항(港)로 운항 중이었다.

피랍 위치는 인도양의 공해상,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 영해까지 7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14노트의 정상속도로 운항한다면 이틀이면 닿을 거리였다. 피랍선이 일단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하면, 최영함(艦)은 군사작전은커녕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갈 수도 없다. 타국의 군함이 자국의 영해로 들어오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기 때문이다.

석 선장은 해적들의 방심을 틈타 이메일로 청해부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청해

비공개 된 '아덴만' 작전 공개
신념과 기지로 극복한 위기들
바다와 함께 한 인생 역정도 소개

운항함으로써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만 보도했다. 하지만 석 선장은 지그재그 운항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삼호 주얼리호의 운항을 지연했다.

엔진 고장을 위장한 저속 운항은 물론, '청수(淸水) 버리기'도 그 중의 하나다. 청수는 배의 연료를 가열하는 보일러에 사용되므로 청수가 없으면 배는 멈출 수밖에 없다.

그 밖에 기관실 화재, 엔진에 물 넣기, 피랍 후 위급한 선내 상황을 알리기 위한 'Un~ 신호 보내기', 신호발사기로 구조신호 보내기 등 석 선장은 작전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었는지 석 선장은 피랍 며칠 전 '방향지시기(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지그재그 운항법을 3등 항해사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석 선장이 해적에게 감금돼 감시 당할 때는 3등항해사가 지그재그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주얼리호가 피랍된 뒤 약 6일간 펼쳐진 청해부대의 교묘한 허위 작전과 함께 석 선장이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던 순간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아덴만 여명작전의 여러 비화를 사실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직면 문제 '화해'하면 다 풀려

화해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

정공 스님 지음 | 바람과 우레 펴냄 | 1만2천원

중화권 불교계를 대표하는 정공 스님의 대담집이다. 정공 스님은 5년간의 수행 중 1일 1식(만두 2개)을 실천한 참 수행자이며, 출가 후 50여 년 한결같이 불경을 강의해 온 큰 스승이다.

일생 TV와 신문, 잡지를 접하지 않았지만, 정공 스님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답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금융위기, 기후변화, 자연재해, 기근, 에너지 부족, 전염병 등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해법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해법과 대안에서 스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화해의 마음이다. 나와 나, 나와 남, 나와 자연, 나와 우주가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정공 스님은 중화권 불교계 최고의 선지식으로 통하는 큰 스님이다. 올해 86세의 노스님으로 출가 이후 50여 년을 오직 불경 강의에만 전념해 온 진정한 학승이다.

중화권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정공 스님이 아직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이번에 법문집이 번역되어 한국 불교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공 스님 법문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성에 있다.

김주일 기자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내림이야기
주벽이야기
의처증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우리음식 궁합이야기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운명의 대부분은 욕심의 반대쪽으로 휜다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352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吳 熙 奎
· 백암 철학원 원장
· 전남 도민신문 이주일의운세 담당자
· 월간 직업뉴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호남인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웨딩센스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작은소리 이달의 운세 담당자
· 월간 예향 생활철학 이야기 연재
· 전남 매일신문 오늘의 운세 담당자
계간 "행복채널" 발행인
2005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선발대회 심사의원
2005 엘리트모델 광주, 전남북 선발대회 심사의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 책을 구입하신 분께는 가시오가피 1박스(1만원)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